

UNIDO ITPO Korea, 제8회 아프리카 가축 전시 및 회의(ALEC) 참가 - 2023년 10월 26-28일 아디스아바바, 에티오피아

UNIDO ITPO Korea 는 프라나 이벤트(아디스아바바 소재 풀서비스 행사관리 · 마케팅·컨설팅사)가 주관하는 제12회 에티오피아 가금류 엑스포(에티오펙스) , 제8회 아프리카 가축 전시회 및 회의(ALEC), 제3회 에티오피아 양봉·수산양식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UNIDO ITPO 는 행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5개의 한국회사 기술을 홍보하였습니다:

1. 파이프트리: 가금류 사육농가 대상 질병 예측 및 생산관리 AI 솔루션 시스템
2. 에이드코리아: 가축 건강의 웰빙과 농가 생산성을 도모하는 동물 헬스케어 서비스인 지속가능한 축산 솔루션(팜스플랜)
3. 한밭: VI-BRAIN EGG AI(계란 품질 AI 검사 시스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계란 선별 기술 및 신선도 판단 기술
4. 반달소프트: 스마트팜과 컨테이너팜 개념
5. 대성 스마트하이브: 벌집 제어 시스템

행사 기간 동안 17개국(에티오피아, 중국, 인도, 네덜란드, 이집트, 케냐, 프랑스, 헝가리, 우크라이나, 스페인, 스코틀랜드, 요르단, 독일, 캐나다,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영국, 요르단 등)에서 온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개막식 동안, 주최자들은 올해의 행사가 지난 참가자 수 대비 50% 증가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결실 있는 교류에 참여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여는 데 준비된 글로벌 무대가 되고 있으며, 네트워킹 세션, 유제품, 사료 및 가금류 하위 부문에 대한 부문별 워크숍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가축 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가축 생산성과 1인당 소비량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편, 에티오피아의 동물 제품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유제품, 계란, 닭고기, 꿀 및 관련 벌집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엘레마트 티루파트"라고 불리는 4년짜리 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26년까지 예상 생산 목표는 우유 생산량을 현재 58억 리터에서 10억 리터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가금류 부문에서는 계란을 58억 리터에서 91억 리터로 그리고 닭고기를 9만 톤에서 24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양봉 부문 또한 296,000 톤으로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의 축산 업계와 한국의 기술 공급 업체 간의 기술 교류는 정부가 제시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LEC 는 지식 공유, 투자 유도, 무역 촉진, 혁신적인 관행 수용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UNIDO ITPO Korea 는 행사 기간에 한국 기업 5곳과 그들의 기술을 홍보하며, 에티오피아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가치 있는 B2B 논의가 이어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UNIDO ITPO Korea의 자문 프로그램은 ALEC 행사 기간 동안 접촉한 에티오피아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은 행사에서 기술 홍보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UNIDO ITPO Korea는 이러한 자료를 배포하고 해당 기업들을 대표하였습니다. 이 행사는 2023년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